

16) 탁 구

일반적으로 구기종목은 그 발생 기원이 분명하지 않듯이 탁구경기도 마찬가지이다. 이태리의 루시크 필라리스(Rusic Pilaris)라는 유희의 변형이라 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라폼(Lapaum)이라는 놀이의 변형이라는 설도 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인도 등 식민지에 살던 영국인들이 테니스에서 힌트를 얻어, 더위를 피하여 방바닥에 네트를 치고 실내에서 즐기기를 위한 경기로 만들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탁구는 다른 종목에 비해 우리나라에 늦게 보급된 것으로, 경기는 1924년 1월 일본인의 경성일일신문사가 주최한 제1회 평풍경기대회가 최초이다. 이를 계기로 급격히 보급되었다. 본래의 탁구경기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실내의 경기로 개최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일찍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탁구경기는 시설·공간·규칙 등 경기운영의 조건이 비교적 까다롭지 않아 쉽게 보급될 수 있었다. 1925년 1월 25일 경성공회당에서 열린 제2회 평풍경기대회에는 일본선수를 포함하여 300여 명의 남녀선수가 참가하였는데, 여자부에서 한국의 이용검(경성여고) 선수가 우승하였다.

한국 탁구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다가 1973년 4월 유고 사라예보에서 개최된 제32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구기종목으로는 처음 여자단체전에서 우승을 하여, 전국적으로 탁구 열기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순천에서는 1952년 제33회 전국체전에서 순천여중이 여중부 2위를 차지하였으며, 1957년에는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순천여중 특수교실에서 호남대회를 개최하여 순천철도청이 우승하였다. 1961년에 순천시탁구협회가 창립(초대 회장 김성재)되어 순천고·농고 등에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1970년 3월 매산중학교 탁구부(지도자 임광윤·임명식)가 창단되어 그해 5월 제51회 전국체전에서 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제52회 전국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활약하였으나 이후로 침체되었다.

1982년에 그동안 침체되었던 순천지역 탁구의 발전과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순천시탁구협회가 재창립되어 김종원·오문석·박우동·오정원·박병환·구제규 회장으로 이어지면서 1982년 순천남초등학교에서 탁구부(지도자 강상목)를 창단하였다. 4년 동안 전남중별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11회 우승하였고, 1983년 경북 김천에서 개최된 전국교사 및 학생탁구대회에서 윤소희 선수가 개인단식 3위를 차지하였다. 1984년 제11회 제주도소년체전에 이현주·윤소희·정유경 선수가 참가하였으며, 1985년 제12회 경주소년체전에서는 단체전 준우승의 성적을 올렸다. 낙안동초등학교와 승남중학교에서 탁구를 육성하는 등 지역 탁구의 맥을 유지하다가, 1989년 협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도사초등학교 탁구부(지도자 유환채)가 창단되어 3년 동안 전남대표로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올렸다.

1992년에는 꿈나무 육성 및 탁구인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남순천병원측의 대지 무상임대와 협회(회장 박병환) 임원들의 협찬으로 남정동에 자체 연습장인 순천탁구인의 집(대지 150평, 건평 70평)을 건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생적인 활동으로 탁구동호회·청우회 등이 구성되어 각종 전국대회 참가 및 교환경기 등을 갖고 있으며, 여류탁구동호회에서는 주부 탁구인들이 모여 상호 친목을 다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